

5) 제례

제례는 일가일족의 사사(私事)로 조상숭배 제의를 말한다. 제례는 유교의 핵심으로 사회, 가족, 성품, 사고구조에까지 깊게 뿌리박혀 있는 우리 민족의 행동의 원리이기도 하다.

조상제례에는 정조(正朝)에 일어나서 지내는 제례가 있다. 이는 연중절사로서 한식 성묘, 추석제사 등의 제의와도 같다. 또한 제사에는 조상 신주를 모시는 사당참례,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사당에 제를 올리는 삭망참례, 1년에 네 번 철따라 그 가운데 달의 정일이나 해일에 지내는 제사인 시제, 매년 고인이 사망한 날에 지내는 기제, 음력 9월 부모 영전에 지내는 예제, 5대조 이상의 조상 묘에 해마다 한 번 드리는 묘제, 철에 따라 새로 나온 곡식으로 만든 음식이나 과일 등을 올리는 천신의(薦新儀) 등이 있다.

제순은 설위(設位), 진설(陳設), 출주(出主), 참신(參神), 강신(降神), 진찬(進饌),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 유식(侑食), 합문(闔門), 계문(啓門), 헌작(獻爵), 사신(辭神), 납주(納主), 철찬(撤饌)이다. 진설은 상 중에는 신위 오른쪽에 국을 차리고 기제 이후에는 왼쪽에 국을 놓는다. 제사 때 신의 도에는 오른쪽을 숭상하기 때문에 우반좌갱(右飯左羹)으로 진설한다. 포혜(脯醢)는 마른 것을 왼쪽, 젓은 것은 오른쪽에 놓는다. 또한 포는 서쪽에 놓고 생선을 동쪽, 고기는 서쪽으로 가게 한다. 머리는 서쪽, 꼬리는 동쪽으로 가게 하며 날것은 동쪽, 익은 것은 서쪽으로 가게 한다. 또한 과일은 붉은 것은 동쪽, 흰 것은 서쪽에 놓는다. 잔은 서쪽에 놓고 접시는 동쪽에 놓는다.